

#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7.1일부터 시행됩니다.

- 지난 4.3일 발표한 「기술금융 개선방안」의 후속조치가 7.1일부터 시행 -

- ❶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
- ❷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
- ❸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

## 1. 추진배경

지난 ‘24.4.3.(수)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「기술금융 개선방안」을 마련하고,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.

### < 「기술금융 개선방안」 주요 과제 >

5대 추진과제	10대 세부과제	필요 후속조치
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	① 우대금리의 명확화 ② 신용대출 확대 유도	테크평가 개편
평가의 독립성 강화	①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②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③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	품질심사평가 개편 신용정보법 개정 기술신용평가 개편
기술신용평가 내실화	①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편 ②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	기술신용평가 개편
사후평가 강화 (품질심사평가)	①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② 평가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	품질심사평가 개편
규율체계 정비	① 신정법에 규정된 행위규칙 정비	신용정보법 개정

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(기술신용평가, 품질심사평가, 테크평가)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.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## 2. 주요 내용

### 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\* 제도 개선

\* 기업의 기술(T)과 신용(CB)을 평가(현재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평가중)

우선, 은행이 일반 병·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,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여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. 또한,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,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.

아울러,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·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,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,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.

### ② 품질심사평가\*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

\* 은행 및 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

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(정량)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. 아울러,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同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.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.

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,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.

### ③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\* 제도 개선

\*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하여 신·기보 출연요율에 반영

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 (16점)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(20→24점)하는 등 담보·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,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였다.

아울러,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,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.

### 3. 향후계획

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\*하고 모두 7.1일부터 시행한다. ①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'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'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, ②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'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'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.

\* (기술신용평가) 연구용역 중인 SI평가등급 가이드는 '25년 1분기부터 시행

(테크평가) 전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대금리는 '24년 9월 이후 실적부터 평가

※ 은행과 평가사의 행위규칙 등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은 8월중 마련

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[참고] 1. 기술금융 개선사항 요약(7.1일 시행사항)  
2. 기술금융 체계도  
3. 테크평가 지표 개선사항

담당 부서 < 총 괄 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우 (02-2100-2865)
< 공 동 >	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	책임자	부 장	전필수 (02-3705-5938)
		담당자	팀 장	허석중 (02-3705-5955)

## 참고1

## 기술금융 개선사항 요약(7.1일 시행사항)

### < 「기술금융 개선방안」 주요 내용(4.3일 발표) >

구분	주요내용
기술신용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금융 대상에서 非기술기업 제외</li> <li>- 평가의 현지조사 및 평가서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</li> <li>- 신규평가 의뢰시 은행 본점에서 임의로 평가사 배정</li> <li>- 기술신용평가 등급 산출 하한기준 및 AI를 활용한 평가등급 가이드 마련</li> </ul>
품질심사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준 강화 및 판정결과 계량화</li> <li>- 우수평가사와 미흡평가사에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공</li> <li>- 평가품질에 따라 평가물량을 배정받는 환경 마련</li> <li>- 은행 자체 품질심사평가를 신용정보원 품질심사평가로 통합</li> </ul>
테크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금융의 우대금리 지표 신설</li> <li>-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지표 배점 확대</li> </ul>
행위규칙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은행의 행위규칙을 신용정보법에 규정</li> <li>-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기술신용평가사 행위규칙 정비</li> </ul>

\* AI등급 가이드 제공 '25.1분기 시행 및 테크평가 중 우대금리 사항은 '24.9월 시행

\*\* 은행과 평가사의 행위규칙 등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은 8월중 마련

### < 추가 개선사항 >

구분	주요내용
기술신용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은행에서 차주에게 기술금융 절차 필수 안내(현지조사 등)</li> <li>- 평가시 기술개요표(기업작성) 및 기업조사표(평가사 작성) 필수 활용</li> <li>-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보장(신규평가 3일, 재평가 2일)</li> <li>- 평가사 인력요건을 자체평가은행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평가역량 제고</li> <li>- 업무규범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신뢰성 제고</li> </ul>
품질심사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품질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의요구권 신설</li> <li>-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</li> <li>- 자체평가은행역량심사를 품질심사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</li> </ul>
테크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공급규모) 평가액 지표를 잔액 지표로 대체 및 차주수 지표 배점 축소</li> <li>- (기업지원) 기술금융 취지에 맞게 IP평가 및 창업기업 지원에 집중</li> <li>- (투자) 은행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은행의 투자실적으로 한정</li> <li>- (정성) 배점을 확대하여 기술금융의 신뢰성 및 역량 강화 도모</li> </ul>

## 참고2

## 기술금융 체계도

-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신용평가 품질관리체계(사후관리)까지의 체계 운영



- ①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기업은 은행에 대출 신청
- ② 기술금융 대상 판단 후, 평가사에 기술신용평가 의뢰
- ③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은행에 송부
  - \* 기술신용평가사(6개) 및 자체평가은행(10개)에서 표준기술평가모형으로 평가
- ④ 기술신용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여신 실행
  - \* 기술등급 T6등급 이상 평가서를 참고한 여신에 대해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
- ⑤ 여신 실행 후, 여신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(대출일, 잔액 등)
- ⑥ 평가 후, 평가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(발급일, 기술등급 등)
  - \* 신용정보원은 기술심사 관련 정보(시장현황 등)를 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에 제공
- ⑦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신·기보 출연금 가감비율에 활용
- ⑧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기술신용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의 기술평가품질 심사평가

### 참고3

### 테크평가 지표 개선사항

【 현행 】			【 변경 지표 】		
구분	내용	배점	내용	배점	구분
기술금융 공급규모 (26점→ 33점)	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순증액	5	기술신용대출 총 잔액	5	변경
	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증가율	8	기술신용대출 총 잔액 증가율	8	
	기술신용대출 차주수 순증분	5	기술신용대출 차주수 순증분	2	배점 축소
	기술신용대출 차주수 증가율	8	기술신용대출 차주수 증가율	2	
			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대출 총 잔액	3	
기술대출 기업지원 (50점→ 42점)	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잔액 비중	10	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대출 총 잔액 증가율	5	신설
	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잔액 증가율	10	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	5	
	IP등 담보대출 잔액	4	일반 중기여신 대비 기술금융 금리 할인폭	3	
	IP등 담보대출 잔액 증가율	4	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잔액 비중(신규증액)	12	배점 확대
	기술신용대출 중 기술개발역량보유 기업 잔액	2	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잔액 증가율(신규증액)	12	
	기술신용대출 중 기술개발역량보유 기업 잔액 증가율	2	IP담보대출 잔액(신규증액)	3	배점 조정
	기술신용대출 중 유망기술분야 기업 잔액	3	IP담보대출 잔액 증가율(신규증액)	5	
	기술신용대출 중 유망기술분야 기업 잔액 증가율	3			삭제
	기술신용대출 차주 중 기술개발역량 및 유망기술분야 기업 차주수 비중	2			
	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잔액 비중	5	기술금융대출 중 창업기업 잔액(신규증액)	4	
기술기반 투자 (12→ 10점)	기술평가 기반 투자 순증액	6	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잔액 증가율(신규증액)	6	
	기술평가 기반 투자 증가율	6	기술평가 기반 투자 순증액	4	대상, 배점 축소
정성평가 (12점→ 15점)	기술금융 역량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	4	기술평가 기반 투자 증가율	6	
	기술금융 품질강화	4	기술금융 역량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정도	5	배점 확대
	통합여신모형 도입 강화	4	기술금융 품질제고	6	
			통합여신모형 도입 노력	4	

「기술금융 개선방안」 포함사항